

## 5) 청사들(靑沙坪)

인제산 줄기가 성신원·순천고·신내과의원까지 뻗었는데 거기를 ‘대밭목’이라 부르고 순천고에서 순천여중, 순천여고까지의 장천동과 저전동을 ‘청사들’이라 불렀다. 50대 이상의 토박이들은 아직도 그 말을 쓴다.

순천에 낙향해 정착한 연일 정씨들이 그 선조인 정자(鄭滋), 매창(梅窓) 조대성(趙大成)을 배향한 곡수사(曲水祠)가 있다. 정유심(鄭惟沈)이 아들 셋을 두었다. 맏이가 자(滋)이고, 둘째가 소(沼)이며, 셋째가 임진왜란 때 재상을 지낸 송강(松江) 철(澈)이다. 딸은 인종(仁宗)의 귀인이다.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인 1545년 6월에 제2계비 문정왕후(文貞王后) 윤씨의 소생 명종에게 양위하자, 척신인 대운(大尹) 윤임(尹任)과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의 반목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인종의 척신인 대운이 명종의 척신인 소윤에게 몰림을 당한 옥사이다.

그때 정자가 유배를 당해 도중에서 죽고 정소는 순천으로, 정철은 창평으로 남하했다. 『묵사대사전』(유홍렬)에는 그때 정철이 고향인 성산(星山)으로 와서 10여 년간 수학했다고 했는데, 정철이 1536년에 태어나 1593년에 작고했으므로 1545년 을사년에는 10살밖에 안 된다. 어린 정철이 고향으로 남하하고, 중형 정소는 순천으로 남하한 연유를 알 수 없다. 추측건대 누이가 인종의 귀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창평과 순천에 전답을 하사하였을 것 같다. 그래서 형 정소는 순천으로, 아우 정철은 창평의 성산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이 되어 따로 살았는지 유배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남하했다면 형제가 함께 한곳으로 남하했어야 마땅한데 따로따로 흩어진 데는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다. 『항남악부』의 「종산포(種蒜圃)」에

청사 정소의 자는 중함(仲函)이요, 본관은 연일이다. 을사명현 정랑 정자의 첫째 동생이고 송강 정철 선생의 둘째 형이다. 18세에 사마 양시에 급제하고 김안국 문하에서 수학했다. 어려서부터 효우가 특출하여 그 형이 화를 입자 슬퍼하여 과거 보는 일을 그만두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본 고을 ‘청사’의 농막에 와서 지냈는데, 성시(城市)의 시끄러움을 싫어하여 소라포(여천)의 달래섬으로 종적을 감추고, 밭을 만들어 마늘을 심고 바다에 낚시를 드리워 고기를 잡았다. 세속의 어떠한 즐거움, 곧 중장(仲長)의 전원에서의 즐거움과 계웅(季鷹)의 순채국과 농어의 맛도 그 멧에 비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일찍이 공이 동생을 방문하러 서울에 갔는데 친구들이 모두

“바닷가가 얼마나 좋고 맛있는 것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소?” 하고 물으니 공은

“나는 섬안에 밭을 갈고 마늘을 심었소. 새 줄기가 자라면 오징어가 저절로 와서 마늘 줄기에 걸리니 모두 잡아 구워 먹지요! 이런 까닭에 돌아오는 것을 잊었소이다.”

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벼슬에 뜻이 없어 낙향해 자연과 벗하며 사는 즐거움을 말할 뿐 유배왔다는 말도, 순천에 서울 사람이 농토를 소유했다는 말도 없다. 형 정자도 호가 청사요, 아우 정소의 호도 청사이다. 아마 형이 유배길에 세상을 뜨자 형을 존경한 끝에 그대로 자기 호로 삼은 것 같다. 아무튼 서울사람이 순천에 농노(農奴)와 전장(田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전장으로 내려왔고, 사람들은 전장의 주인 호를 따서 들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청사들이다. 그러니까 청사 정소의 들이란 뜻으로 청사들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친중승평지』의 서원사묘(書院祠廟)에 “청사서원은 성의 남쪽에 있다. 청사 선생 소의 사실이 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순조 임진년(1832)에 사당을 세웠고, 고종 무진년(1868)에 서원이

헐리었다. 매창 조대성과 정랑 정자를 배향했다.”고 했다.

『항남약부』의 「구곡인(九曲引)」에 “정시관(鄭時灌)은 자가 옥이(沃而)이고, 본관이 연일이다. 청사 선생의 증손이며 8문장의 하나이다. 성의 남쪽 청사평에서 살았다. … … 사는 집은 검소했으나 당 아래 계단이 있고 계단 아래 연못이 있었다. 물을 끌어다 구곡을 만들어 날마다 술잔을 띄우며 스스로 즐겼다.” 이 기록으로 보아 정문(鄭門)에서 곡수서원이라 함은 사당인 곡수사를 잘못 부름이니 마땅히 청사서원이라 해야 한다. 청사들은 순천여중 앞 들이고 정소의 소유였기에 청사들이라 불렀으며 청사서원이 저전동에 애초에 있었는데 재건하면서 정소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분명하다.